

기관돋보기 | 충주댐노인복지관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충주댐노인복지관은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 중심 서비스와 찾아가는 특화사업을 통해 다양 북부지역 노인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노인복지기관이다.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방방곡곡 실버대학’, 취약계층 일상 돌봄을 위한 공공이불뿔래방 ‘도담샘터’, 친환경 실천을 돕는 업사이클 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농촌형 복지관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일평균 130여 명의 어르신들을 포용하며 지역의 든든한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한 충주댐노인복지관

이번 기관돋보기에서는 복지관의 주요 성과와 현장에서 마주한 생생한 사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들여본다.

(편집자주)



단양군 매포읍에 위치한 충주댐노인복지관 전경.

방방곡곡 실버대학부터 도담샘터까지... 지리적 한계 극복 일평균 130여 명 이용, 연간 5900여 건의 돌봄서비스 구축

비스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 바 있으며, 2023년부터는 분산 거주 환경을 반영한 찾아가는 복지관 사업인 방방곡곡 실버대학을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문강사가 직접 마을로 찾아가 심리·정서, 건강, 문화예술, 디지털 교육 등 20여 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여가·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있으며, 전년도 기준 약 400명의 어르신이 이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여기에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이불뿔래방 ‘도담샘터’도 눈길을 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약 5908건(지난해 기준 1042가구)의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며 위생 환경 개선과 안부 확인 등 지역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실천과 사회참여를 돕는 업사이클 프로그램을 통해 어

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나눔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충주댐노인복지관은 일평균 약 130명의 어르신이 평생교육과 경로식당 등을 이용하기 위해 찾고 있다. 복지관을 찾아오는 이용자는 물론, 복지관이 먼저 찾아가야 하는 복지 주민들까지 폭넓게 포용하며 농촌형 노인복지의 깊이와 가치를 더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열정 뒤에는 농촌형 복지관 특유의 뼈아픈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리적 환경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다. 산간지역이 많고 읍·면별 거주지가 넓게 분산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복지관 방문 자체가 커다란 물리적 부담이다. 여기에 고령화 심화 대비 전문 인력 및 복지 자원의 부족이 무게를 더한다.

후기고령 인구가 급증하며 정서·심

리, 전문 상담, 문화예술 등 복지 욕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농촌지역 내 전문 인력과 연계 자원은 턱없이 부족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댐복지관’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보다 댐 주변지역 지원이나 보상 개념의 기관으로 오인하는 시선이 일부 남아있어, 전문 사회복지기관으로 온전히 인정받기까지는 여전히 인식 개선이라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유이 관장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동권과 복지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다”며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관 최소 인력 기준 확대와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관을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충주댐노인복지관이 그리는 방향은 농촌형 복지의 한계를 넘어 생활권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르신 간 관계와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이 서로 만나 소통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지역복지 거점으로 역할을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복지 어르신들에게까지 배움과 건강, 여가, 정서 지원 서비스를 이어가며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리적 여건과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삶 가까이에서 존엄한 노후를 지켜가겠다는 충주댐노인복지관의 노력은 단양 북부지역의 든든한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단체연대 관계자들이 충북지사 선거 후보 캠프에 방문해 복지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충북사회복지단체연대, “우리는 요청합니다”

‘중보자 처우 개선·권익지원센터 설치’ 등 필요 17개 직능단체 참여... 후보 캠프에 제안서 전달

충북사회복지단체연대(공동대표 유응모, 조수동)는 18일 오전 11시 충북 사회복지 현장에 필요한 복지공약이 담긴 ‘우리는 요청합니다’ 정책 제안서를 충북도지사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충북사회복지단체연대가 제안한 3대 핵심 복지공약은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 역량강화 지원, 사회복지시설 중보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용, 사회복지중보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충북사회복지단체연대에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회협회 등 17개 직능단체가 참여했으며,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복지공약을 제안했다.

공동대표를 비롯한 참여 단체장들은 이날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캠프와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캠프를 방문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

방선거 복지공약 정책제안서 ‘우리는 요청합니다’를 전달하고, 제안된 복지공약을 충청북도 사회복지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응모 공동대표는 “사회복지 현장의 돌봄과 복지 수요 증가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제도적·재정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돼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수동 공동대표도 “충북 사회복지 현장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중보자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복지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후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수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그냥드림 사업’ 확대 운영

4개 시·군 추가 개소... 식생활 취약계층 적극 발굴

충북도는 저소득층은 물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그냥드림 사업’을 5월부터 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도내 5개 시·군(청주, 충주, 제천, 진천, 괴산)의 푸드마켓·뱅크에서 처음 시작한 그냥드림 사업은 ‘첫 방문 시 누구나 지원’이라는 취지 아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기존 푸드마켓·뱅크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용자를 선별해 식품을 우선 지원하던 방식과 달리, 방문자에게 우선 물품을 제공한 뒤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생활 실태를 살피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결과, 4월 말까지 8231명이 먹거리를 지원받았으며, 이 가운데 1142명을 대상으로 복지 상담이 이뤄졌다. 이

를 통해 60명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 푸드뱅크 이용 대상 선정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연계됐다.

5월부터는 옥천, 증평, 음성, 단양 등 4개 시·군이 추가로 사업에 참여한다. 개소 일정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9월에는 보은과 영동시가 추가 참여해 연내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냥드림 사업장에서는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한다. 즉석밥, 라면, 김치, 통조림, 휴지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는 첫 방문시 신청서 작성만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재방문 시에는 기본상담을 거쳐 이용 가능하다. 또한 상담 결과에 따라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홍지연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적극 발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요교실 결과발표회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환한 미소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푸드아트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소통과 공감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정위탁 사랑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가족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3조)

위탁부모가 되려면?

- 1) 아동에 대한 애정과 사랑
- 2) 25세 이상, 아동과 나이차 60세 미만
- 3) 범죄전력 및 정신질환 NO
- 4) 친자녀수 4명 이하
- 5) 예비위탁부모교육 5시간 이수

위탁부모 신청 절차는?

- 1) 가정위탁 신청 및 접수
- 2) 예비위탁 부모교육 수료
- 3) 예비위탁가정 상담 및 방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합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043-250-1226

청주시, 빈집 정비 1호 ‘봉명골 경로당’ 준공

방치된 유휴공간 정비해 주민 복지공간 탈바꿈

청주시는 16일 도심에 방치된 빈집 부지를 활용해 ‘충북 도내 제 1호 빈집 정비 경로당’인 봉명골 경로당을 준공했다.

이번 사업은 흥덕구 봉명1동에 있던 빈집을 청주시가 직접 매입해 정비한 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으로 조성한 사례다.

단순히 노후 빈집을 철거하거나 방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공간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시는 기존 낡은 건물을 우선해 사용하는 방식 대신, 해당 부지를 전면 정비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추진했다. 이는 기존 건물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어르신

들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경로당은 지상 1층 단층 구조(건축면적 99.93㎡)로 조성돼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쾌적한 실내공간과 접근성을 갖춘 주민 복지공간으로 조성됨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빈집 문제 해소와 부족한 주민 복지시설 확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으로 재생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의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봉명골 경로당 전경.

아울러 경로당이 본격 운영되면 인근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날 말 개소식을 개최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곧바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막바지 정비를 마친 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

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심속 방치됐던 빈집 부지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공간으로 되돌려준 도시재생형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빈집과 유휴공간의 공공 활용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거점으로 재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총력’

생활인구 기반 정책 실증 가능성 강조

단양군은 소멸위기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하고, 사업 선정을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기본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모 전략 수립과 사업모델 구체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군은 단양만의

차별화된 정책 실증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현재 단양군은 주민등록상 인구의 10.7배에 달하는 약 29만 명의 생활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북 북부권을 넘어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리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

군은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단양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역 소비 확대 효과와 생활서비스 이용 활성화 효과를 검증하기에 적합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와 전국 확산을 위한 광역생활권 기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

했다.

아울러, 지역이 장기간 겪어온 특수한 여건도 주요 근거로 담았다. 군은 시멘트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동시에 월악산국립공원을 비롯한 국립공원 지역이 넓게 분포해 주민들이 환경적 부담과 각종 개발 제한, 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적 제약과 생활 불편을 완화하는 실질적 지원책이자, 지역 활력 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은 사업 선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염원을 담아 주민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주민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생활여건 개선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이 확정될 경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연계 방안도 마련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착한가격업소 등 사회적경제 분야 가맹점 등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원해 기본소득이 지역 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확산·환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 지역과 일부 업종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양을 중심 상권의 1일 사용 한도 설정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거주지 면 지역 가맹점 이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제천시 ‘반값 여행’,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다

한 달간 소비액 7억 2000만원, 환급 대비 2.5배 소비 효과

제천시는 ‘반값 여행’으로 소비 효과와 지역관광이 살아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4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반값 여행 참여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액은 약 7억 2000만원으로 지급된 환급액 약 2억 9000만원 대비, 2.5배 가량의 소비 효과가 나타났다.

또 반값 여행 환급을 신청한 관광객은 총 1650팀 4187명이고, 이중 1600팀 4067명에게 환급금이

지급됐다.

특히 참여 관광객 가운데 1박 2일 이상 머문 관광객이 94.6%를 차지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시는 하반기 2차 사업부터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과의 연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쿼알(QR) 인증을 통해 관광객 방문과 소비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광 할인 혜택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정책을 강

화한다는 예정이다.

앞서 시는 관광객이 지역에서 모바일 제천화폐로 20만원을 소비할 경우, 다시 10만원 이상을 환급해 주는 ‘반값 여행’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반값 여

행 사업은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와 체류시간 확대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지역관광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음성군, 통합돌봄 ‘주민 체감 자리매김’

방문진료·재활·주거개선·우울관리까지 통합 지원

음성군은 올해 처음 시행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실제 도움 사례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그동안 의료·돌봄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개인의 상황에 맞춰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은 지난 3월 27일 사업 시행 이후 보건소,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필요

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실제로 최근 의료기관을 통해 지역사회로 의뢰된 한 노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한쪽 몸이 마비된 채 퇴원해 혼자서는 식사와 세면조차 어려운 상황이 었다. 이 노인은 예전 같으면 가족이 병원과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을 일일이 방문해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의뢰 직후 다학제 통합지원 회의가 열려 단 한 번의 상담만으로 6개 서비스가 동시에 연계됐다.

그 결과 퇴원 직후 사실상와 상 상태로 혼자 생활이 어려웠던 노인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으며, 가족의 간병 부담도 크게 줄었다.

또한 요양병원 등에 재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이러한 사례가 통합돌봄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돌봄제도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중요한 만큼 군은 제도의 취지와 신청 방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병헌 군 가족행복과장은 “통합돌봄의 핵심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서비스를 노인이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이 먼저 연결해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퇴원환자 연계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저소득 취약계층 치과 치료비 감면

치과의원 6곳과 업무협약... 비급여 진료비 10% 감면

진천군은 7일 관내 치과의원 6곳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치과 치료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맘편한치과의원(원장 최보영), 시카고치과의원(원장 이철호), 김현성치과의원(원장 김현성), 온아치과의원(원장 홍성하), 중앙치과의원(원장 김성원), 더감동치과의원(원장 한철규)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기에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치과의원은 진

천군이 추천하거나 자격을 확인한 대상자에게 비급여 치과 진료비의 10%를 감면해 주며, 진천군은 지원 대상자 발굴과 자격 확인, 대상자 안내 및 연계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사례관리 대상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이용 절차는 진천군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받고, 대상자가 협약 치과의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과 추천서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남현 군 주민복지과장은 “치



진천군은 관내 치과의원 6곳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치과 치료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 치료는 시기를 놓치면 건강 악화와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접수

내달 23일까지 신청... 제품 가격의 80~90% 지원

충주시가 오는 6월 23일까지 장애인 유형별 특성에 맞춘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보급 품목은 점자정보단말기, 영상확대시스템, OCR(문자판독) 장비, 터치 모니터, 특수 키보드·마우스, 대화용 장치, 소리 증폭기 등이다.

일반 대상자는 제품 가격의 8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90%까지 시가 지원한다. 신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에서 하거나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정보통신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16일 충북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충주시가 오는 6월 23일까지 장애인 유형별 특성에 맞춘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보급 품목은 점자정보단말기, 영상확대시스템, OCR(문자판독) 장비, 터치 모니터, 특수 키보드·마우스, 대화용 장치, 소리 증폭기 등이다.

일반 대상자는 제품 가격의 8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90%까지 시가 지원한다. 신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에서 하거나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정보통신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16일 충북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노바캠리더'

김주상 시 정보통신과장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해 정보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에서는 복지+디자인+주택의 개념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와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주택체험관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거주공간 설계를 통해 모두가
불편함 없는 생활 공간 체험



유니체험관

모두를 위해 디자인 된
UD적용 일상용품 이해



휠체어 체험관

이동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휠체어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주행 체험

교육 신청하기 >

 043-234-0840~2



영동군, 행복복지거점 조성사업 본격 추진

장애인건강지원센터·사회복지센터·복지회관 신축

영동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행복복지거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동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단계로 영동을 매천리 454번지 일원에 주민 체감형 복지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행복복지거점에는 총 3개 건물이 신축되며 전체 연면적은 약 4287㎡ 규모로 조성된다.

장애인건강지원센터는 연면적 1097.3㎡(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재활치료실과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다.

사회복지센터는 연면적 2394㎡(지상 4층) 규모로 자활제품작업장과 건강케어시설, 사회단체 사무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복지회관은 연면적 796.5㎡(지상 3층) 규모로 주민사랑방과 프로그램실, 다목적강당 등을 갖춰 다양한 주민활동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 기능을 한곳에 집약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군사회복지센터 조감도.

이달 중 터파기 등 기초공사가 약 2~3주간 진행되며, 이후 본격적인 골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공사 기간 분진과 소음,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복지시설 이용 주민들에게

는 인근 보건소와 체육시설 내 주차장 이용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행복복지거점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사 기간 중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옥천군, 청년 거버넌스 출범… 정책 실행력 강화



옥천군 청년 거버넌스 위원들이 정책 참여 확대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청년·공무원 20명 참여… 운영 체계 전면 개편

옥천군은 11일 청년센터 ‘청년 이랑’에서 청년 거버넌스 발대식을 열고 지역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민·관 협력 활동의 첫발을 땀다.

이번 거버넌스는 지역 내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위원 16명과 군 공무원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옥천군 청년 거버넌스는 기존 대규모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수 정예 인원이 팀 단위로 집중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는 위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책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정책 교육과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연계해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제 예산 편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함께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팀별 활동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위원들은 정기적인 팀별 회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군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6월부터 매달 한 차례 전문 정책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되며, 연말 성과공유회를 통해 활동 결과가 군민들에게 공개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거버넌스가 정책 과정의 핵심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의견들이 실제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동군, 취약계층·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추가 모집

6월 30일까지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영동군은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포츠 활동 참여가 쉽지 않은 군민들에게 체육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균등한 체육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만 5세~18세 유·청소년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경찰청 추천)이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만 5세~69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장애 특성상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범위 내에서 보호자 1인까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유·청소년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0만 5000원, 장애인은 월 최대 11만원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체육시설사업소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군은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권 선정 이후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이용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체력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군, 결혼·출산 가구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연 최대 50만원… 5년간 최대 250만원 혜택

증평군은 결혼·출산 초기 가정의 주거비와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18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4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자금 대출 이자율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조건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하다.

다만 올해 사업 시행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출산한 가구는 1년이 지났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연간 최대 50만원이며 최대 5년간 최대 2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인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혼 후 출산 하거나 출산 후 추가 출산을 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했다.

지원 자격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증평군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가구다. 또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8일부터 12월까지 증평군청 본관 2층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결혼·출산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걷다보니 통장부자’ 생활 속 건강사업 자리매김

하루 7000보 달성 시 500원 적립… 월 최대 1만원 지급

괴산군은 걷기 챌린지인 ‘걷다보니 통장부자’가 군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생활 속 건강증진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군민이 하루 7000보를 걸으면 500원을 적립해 월 최대 1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걷기 챌린지에는 6419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5594명에게 총 4377만 6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사업 초기인 2월 참여자 3423명과 비교하면 참여 인원은 87.5% 증가했다.

참여 증가세는 5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참여자는 6611명으로 2월보다 93% 늘었다.

올해 누적 참여 인원은 2만 417명이다. 2월부터 4월까지 인센티브를 받은 주민은 1만 1910명이며, 지급액은 총 8340만 9000원에 달한다.

참여 확대에는 보건소의 적극적인 홍보가 큰 역할을 했다. 보건소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마을 경로당 등에 포스터를 게시해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 지역 중·고등학교와 중원대학교, 육군학성군사학교 등에 사업을 안내하며 젊은층 참여도 독려했다.

‘걷다보니 통장부자’ 걷기 챌린지는 만 14세 이상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



괴산군의 걷기 챌린지 ‘걷다보니 통장부자’가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생활 속 건강 증진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한 뒤 괴산군 커뮤니티에 가입해 월별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이후 하루 7000보를 달성한 뒤 ‘리워드 받기’를 클릭하면 된다. ‘지역상품권 chak’ 앱 가입도 필요하다.

김미경 군 보건소장은 “걷기 챌린지 참여가 늘어난 것은 체계적인 홍보와 꼼꼼한 인센티브 지급 관리 덕분”이라며 “군민들이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1000원 내고 영화 관람 ‘작은영화관’

예산 소진 시 까지…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공모 선정

보은군은 이달 13일부터 보은영화관 영화관람료 할인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최신 개봉작을 1000원만 내고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작은영화관 기획전 및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됐다. 군은 1인당 최대 6000원의 관람료를

지원한다.

할인 혜택은 온라인 예매와 현장 발권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는 씨네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작은영화관 전용 할인쿠폰’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 발권은 매표소에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 행사는 차수별로 운영된다. 1차 할인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2차 운영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보은군을 비롯해 영동군과 옥천군 등 남부 3군 작은영화관도 함께 할인 지원에 나선다. 각 지역 주민들은 영화관별 운영 일정과 할인 기간을 확인한 뒤 혜택을 이용하면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올해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혜택”이라며 “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대리 (T.043-234-0840~2)

충북 가정위탁부모, 대통령 표창 수상

13년여간 특수육구아동 양육
공공·전문성 향상 기여 공로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장화정)는 4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2026년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소속 위탁부모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정부포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위탁부모의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대통령 표창은 훈·포장을 제외한 표창 중 최고 훈격으로 수상의 의미가 매우 깊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위탁부모는 지난 13년 8개월 동안 총 3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소속 위탁부모가 '2026년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명의 특수육구아동을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해왔다.

특히 지적장애 및 학대 피해 등 고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장기간 전문적으로 돌보며 치료와 교육, 나아가 자립 연계까지 이끌어 아동의 회복과 성장에 결

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위탁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등 가정위탁 보호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 온 공로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

장화정 관장은 “오랜 시간 묵묵히 아이들의 곁을 지켜온 위탁 부모님의 노고가 이번 포상을 통해 빛을 보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위탁가정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동을 보살필 수 있도록 센터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정위탁제도는 학대, 방임, 빈곤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충청북도 지정 아동복지기관으로서 위탁가정 발굴 및 교육,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충북광역자활센터, 저소득층 자립 지원

충북도노인복지관과 협약
자활생산물 신규 판로 개척

충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안성희)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은 지난 4월 29일 지역사회 상생발전과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활생산물의 신규 판로 개척에 본격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노인복지관의 인프라와 자활센터의 생산 기반을 결합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양 기관은 앞으로 노인복

지사업과 자활사업을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생산물의 판로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캠페인 및 후원행사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복지관 내에 자활사업단의 푸드트럭 설치를 지원하고 복지관 회원과 임직원에게는 자활생산물 구입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5월부터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1층 로비와 외부 광장에서 가치소비 장터가 정기

적으로 열린다. 주요 품목으로는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오란다, 누룽지 등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먹거리가 준비될 예정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커피트럭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판매 거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저소득 참여 주민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자립을 지원하여 자활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충북광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충북광역자활센터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상생발전과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다른 유관기관으로도 상생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특별한 추억 만들어요”

‘티움버스’ 지원사업 선정
경북 울진 동해바다 나들이

청주내덕노인복지관(관장 김혜정)은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의 ‘티움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5일 재가서비스 이용 어르신 36명과 함께 경북 울진 후포리로 나들이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사업은 나들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평소 이동의 제약으로 외부활동과 장거리 여행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문화·여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은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의 '티움버스' 지원 사업에 선정돼 재가서비스 이용 어르신들과 여행을 다녀왔다.

특히 어르신들은 푸른 동해바다를 직접 바라보며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

다.

어르신들은 경북 울진 후포리 벽화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벽화와 바다 풍경을 감상했으며, 등기

산 스카이워크와 등대공원을 산책하며 아름다운 동해의 절경을 만끽했다. 또한 지역 식당에서 신선한 회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 담소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행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멀어서 평소에는 오기 힘든 곳인데 이렇게 와서 너무 좋다”며 “무엇보다 동해바다를 볼 수 있어 마음이 참 좋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혜정 관장은 “한국타이어나눔재단 ‘티움버스’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께 특별한 추억과 힐링의 시간을 선물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정서적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충북지역분부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보은군가족센터와 함께 이주배경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초록우산 충북본부, 이주배경아동 교육 ‘맞손’

서부복지관·보은군가족센터
맞춤 한글 교육·보육료 지원

초록우산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주경식)는 7일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태순), 보은군가족센터(센터장 정해자)와 함께 이주배경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 ‘널 응원한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언어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놓인 이주배경아동을 대상으로 조기개입을 실시하여 언어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초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널 응원한글’ 사업은 이주배경아동의 한국어 습득을 돕기 위한 맞춤형 언어발달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준별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개별 지원 등을 통해 아동과 가정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언어발달의 골든타임에 맞춘 조기개입을 통해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 및 지역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보은군가족센터는 이주배경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

할 예정이다. 언어발달지원과 돌봄 지원을 연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경식 본부장은 “이주배경아동이 언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 충북지역분부는 가족돌봄아동, 인재양성아동, 위기영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개관 20주년 ‘감사 나눔’

홍보부스·먹거리·체험 다채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종분)은 15일 복지관에서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지역주민과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감사 나눔 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변인순 보은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을 비롯해 복지관 이용자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20년간 복지관과 함께해 온 지역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붉은노을봉사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유관기관 홍보부스 운영, 먹거리 나눔,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지역주민과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감사 나눔 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행태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2006년 문을 연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평생교육과 건강증진, 여가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며 지역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

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종분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송종합사회복지관, ‘가족애·봄날’

체험·공연·먹거리 풍성

오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응모)은 16일 제10회 가족애(애)봄날 행사를 실시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 가족·친구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이며, 특히 ‘환경친화축제를 주제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조성에 중점을 둔다.

행사 당일에는 지역 내 보건·복지·의료·교육 기관 및 단체 23곳이 참여해 체험 및 캠페인 부스, 먹거리 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복지관 대강당에서는 오전에 어린이 플리마켓 ‘오송(ESG) 상점’이 열렸고, 오후에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타악 퍼포먼스 ‘잼스틱 플라스틱 뮤직박스’ 공연이 진행됐다.

유응모 관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문화를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한 '오송 가족애 봄날'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이 '나만의 반려식물 만들기' 부스에서 체험을 하고 있다.

즐기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www.043w.or.kr

충북복지넷

충청북도의 복지정보와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맞춤복지서비스찾기

SSN 교육

바로가기

복지정보·연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관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 연결한다

위기가구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위기 상황인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가구는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후 선제 지급
위기가구 방문상담 시 생활물품세트인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하여 초기 접근성 제고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제도 운영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했다. 기존 ‘복지안전망’의 공백으로 인해 예측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을 메운 ‘복지안전매트’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했다.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경제, 돌봄, 정서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발굴·개입·지원·관리 단계별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자동지급 및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 추진, 아동·노인 돌봄가구, 자살 시도자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추진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기가구 발굴부터 개입, 지원 및 관리까지 각 단계별로 구성하였고,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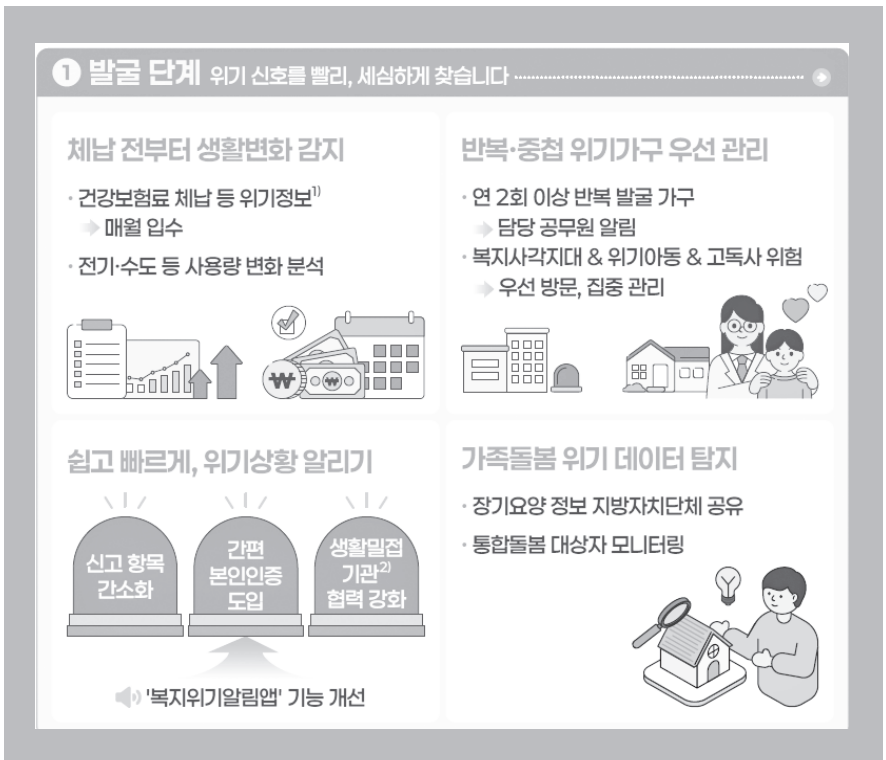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한층 고도화 해 위기 징후를 보다 조기에 포착하고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전기·수도요금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납된 이후에야 위기 정보가 포착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공공요금 사용량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생활 패턴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기존 1~2개월 주기로 입수하던 위기 정보도 매월 단위로 지자체에 제공해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위기 예상 가구를 선별해 연 6차례 안팎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왔지만, 대상 가구 수가 많아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위함도를 즉각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굴되거나 여러 시스템에서 동시에 확인된 가구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가동·고독사 발굴시스템 등에서 중첩 확인된 가구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은 단순히 ‘발굴 건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보다 정밀하게 선별해 실질적인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위기 감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기존 시스템은 체납이나 단전·단수 등 ‘이미 위기가 발생한 이후의 신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생활 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대응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위기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상담과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공공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행정이 먼저 찾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지금까지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돼 왔지만,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 자체를 부담스러워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특히 위기가구 상당수가 복지정보 부족, 심리적 위축, 행정기관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복지급여 자동지급 확대와 직권신청 실효성 강화를 중심으로 신청주의 개선에 나선다. 우선 복지급여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만으로 연명

과 자격 확인이 가능한 만큼 자동지급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출생 신고 이후 보호자가 별도로 급여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별급여 분야에서도 변화가 추진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존 수급 이력이나 정부 보유 정보를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을 확인한 뒤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직권신청’ 확대다. 현재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가능해, 위기 상황임이 명확해도 대상자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분명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당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해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미동의 직권신청의 기준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현장 공무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의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청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과다 지급이 확인되더라도 환수 면제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위기가구와의 초기 접촉 자체가 쉽지 않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희망드림 꾸러미’ 지원도 추진한다.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최초 방문 상담할 때 식료품과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생활물품 세트를 함께 전달해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과 상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공공복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상담 거부나 접촉 회피로 인한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번 신청주의 개선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화에 그치지 않고, 복지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직접 문을 두드려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능동형 복지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위기가구 소득, 돌봄, 심리지원

위기가구를 발굴하고도 제도 기준에 맞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복지급여 기준의 유연한 적용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현장에서는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재산 기준이나 세부 요건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위기 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제도의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또한 일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현장에서 긴급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보다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 위기와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다자녀 가구나 인구간소지역의 경우 자동차가 생계·돌봄·이동을 위한 사실상 필수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농어촌이나 교통 취약지역에서는 차량 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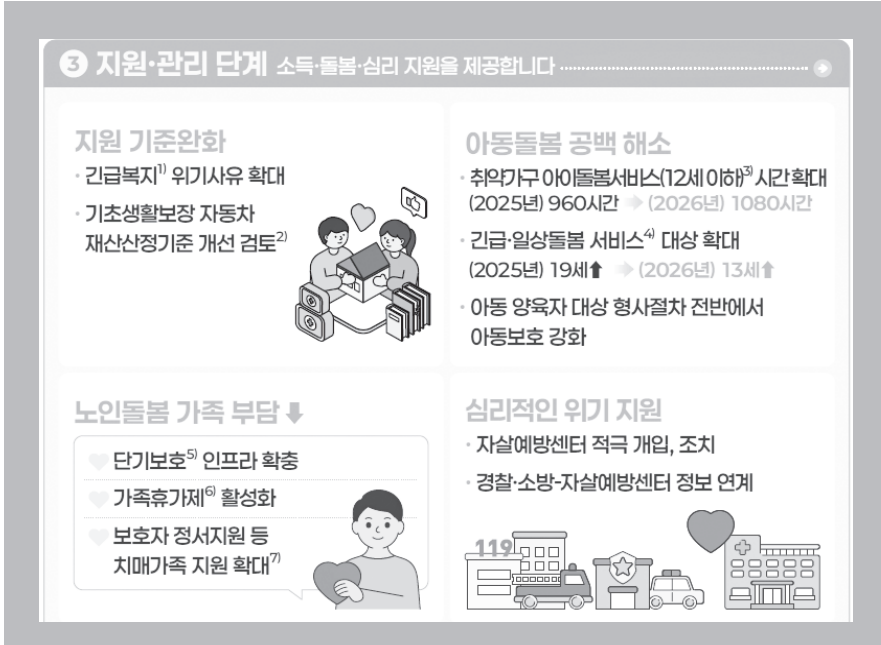
아동돌봄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돌봄 공백 장기화로 양육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보호자의 경제활동 유지와 양육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대 방범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가동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부서가 공동사례관리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아동보호, 복지, 돌봄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정보 공유와 연계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동보호팀·드림스타트·희망복지팀 등이 함께 개입해 상황 공유부터 지원 계획 수립, 사례 종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위기가동 가구에 대한 지원 공백을 줄이고 보다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동 양육자에 대한 형사절차 과정에서도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양육 환경과 가정 상황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의자 체포·구속 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 즉시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는 법안 논의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형사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노인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장기요양 단기보호가 가능한 주야간보호기관과 치매안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가

족 돌봄 보호자를 위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한다. 고령화 심화와 함께 가족 돌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돌봄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자살 예방 분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 체계가 마련된다. 현재는 자살 시도자가 상담이나 치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입에 한계가 있었지만, 반복적인 자살 시도 위험성을 고려해 앞으로는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자살예방센터가 즉각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현장 복지공무원 적극 지원

‘적극적 복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복지공무원의 역할과 대응 역량 강화가 핵심이라고 보고, 현장 인력 확대와 업무 지원 체계 개선에 나선다.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읍면동 현장의 복지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우선 위기가구 방문상담과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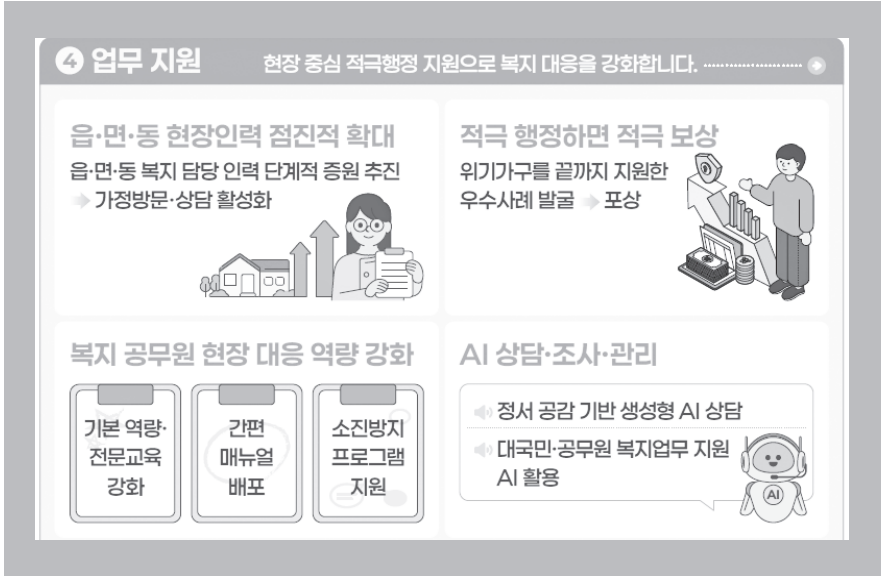
현재 약 2만 4000명 수준인 현장 복지 인력을 확대해 전화 위주 상담에서 벗어나 가정방문과 대면 상담 중심의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반복 상담이나 사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고, 업무 과중으로 적극적인 개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정부는 복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직권신청이나 선제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과 책임 우려로 인해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상금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히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한 현장 공무원을 보호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 행정 혁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복합적인 복지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AI 복지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용자 상황에 맞는 개인별 복지서비스 추천 시스템도 개발한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정서적 공감 기능까지 가능한 상담 서비스를 구축해 복지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 업무는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급여 적정성 판정이나 대상자 관리 등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지원 AI도 개발한다. 이는 현장 공무원이 단순 행정 처리보다 상담과 사례관리, 위기가구 대응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 수요 증가와 함께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번 대책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부터 개입, 지원·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보다 촘촘한 복지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굴 단계에서는 생활 위기 신호를 조기에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입 단계에서는 자격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거나 위기 상황 시 직권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 단계에서는 복지급여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고, 아동·노인·자살시도자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된다. 아울러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과 AI 기반 행정 효율화가 함께 추진되면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복지체계에서 벗어나 예방과 선제 대응 중심의 복지체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신청을 기다리는 복지’에서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광장



고 정 숙
제천실버요양센터장

뇌과학자들은 치매 환자의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되면 단기 기억부터 시작해 장기 기억까지 서서히 소멸한다고 설명한다. 논리적으로는 자식에 대한 기억 또한 사라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모성애는 단순한 기억 정보가 아니라 감정 중추인 편도체 같은 곳에 각인된, 생존 본능과 결합된 아주 특별한 감정 기억이라는 가설이 힘을 얻는다.

논리와 이성을 관장하는 대뇌피질이 망가져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뇌 부위는 자식을 향한 보호 본능을 끝까지 불붙고 있다. 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성의 뇌’

고 기르며 수십년간 반복해 온 사랑의 행위가 뇌의 구조 자체를 ‘사랑하는 뇌’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가 계셨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를 알아보지 못한 지 오래였다. 하루는 그녀의 50대 아들이 면회를 왔다. 아들이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노모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아들이 “어머니, 저 왔어요”라고 말하며 손을 잡았지만, 그녀는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었다. 요양보호사가 가져다 준 밥그릇을 받아 든 노모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휴지를 꺼내 밥을 싸기 시작했다. 요양보호사가 놀라 “할머니, 왜 그러세요? 드셔야죠”라고 말하자, 노모는 평소와 달리 포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들 즐겨야. 내 새끼 배 안 고프게 먹여야해”

아들의 얼굴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식을 먹여야 한다’는 그 절절한 본능만은 뇌의 어떤 손상도 건드리지 못한 것이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다. 당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순간에도 자식의 배고픔을 걱정하는 그 마음은 기억의 영역이 아니라 영혼의

영역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뇌는 연약하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억은 희미해지고, 때로는 질병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와 평생 쌓아온 삶의 흔적들을 백지처럼 하얗게 지워버리기도 한다. 알츠하이머, 즉 치매는 가장 잔인한 도둑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도, 어제 먹은 밥의 맛도, 심지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조차 낯설게 만든다. 하지만 수많은 임상 사례와 가족들의 증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전해준다. 뇌세포가 파괴되고 인지 기능이 무너져 내리는 그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빛나는 단 하나의 본능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다.

또 다른 사연은 비 오는 날의 일화다. 치매 판정을 받고 집을 나간 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가족들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어머니는 집에서 10km나 떨어진 낯선 동네에서 발견되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품에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응크려 있었다고 했다.

경찰관이 품에 안은 것을 확인해 보니, 그것은 갓 썩은 감자가 든 보따리였다. 어머니는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며 집 주소는 대지 못했지만 단 한 마디만은 계속 되뇌었다고 한다.

“우리 막내 학교 갔다 오면 먹일거야, 배 끓으면 안 돼”

그녀의 시간은 막내아들이 고등학생이던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이다. 길은 잃어버렸어도, 자식에게 밥을 먹여야 한다는 그 방향성만은 잃지 않았다. 치매라는 안개 속에서도 모성애라는 나침반은 정확히 자식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기억한다’는 것을 뇌의 작용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어머니들을 보면 기억의 주체는 뇌가 아니라 가슴, 혹은 온몸의 세포 하나 하나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들은 자식의 이름 세 글자는 잊었을지언정, 자식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자식을 어루만지던 손길의 온도는 잊지 않는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혹은 가까운 누군가가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 슬퍼하고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들이 비록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당신을 낯선 사람처럼 대할지라도, 그들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당신을 향한 사랑이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을 것이다.

치매는 기억을 앗아갈 수는 있어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위대한 사랑의 탑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 모성애는 인지 능력을 넘어선, 생명의 가장 숭고한 본질이기 때문이다.

현장의 목소리



문 선 주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매니저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아동들의 모습은 아주 평범하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모습,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며 질문을 건네는 목소리, 잠들기 전 하루를 정리하며 나누는 짧은 대화 등 평범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부모와 아동의 모습이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그 자체가 처음 경험하는 안정감이기도 하다.

위탁아동들은 각기 다른 사정 속에서 위탁가정으로 오게 된다. 친부모의 아동학대, 이혼으로 인한 양육 공백,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더 이상 친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한 환경 속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새로운 돌봄과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 위탁가정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렇기에 가정위탁은 단순한 보호의 개념을 넘어 아이의 삶을 다시 세워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위탁가정을 연결하는 과정은 언제나 신중할 수밖에 없다. 위탁가정은 아이를 잠시 맡아주는 곳이 아니라, 아이가 다시 일상의 감각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는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탁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한 가정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한 아이의 회복 여정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찾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경험 중 특히 오래 기억에 남는 사례는 생후 100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위탁가정에 배치했던 순간이다. 아직 세상에 대한 인식조차 형성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였기에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위탁가정을 선정하고 첫 만남을 진행하던 날, 위탁부모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긴장과 책임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보였고,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 일이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한 아이의 시작을 함께 여는 과정임을

새삼 느꼈다. 이후 아이가 위탁가정의 세심한 돌봄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위탁가정의 역할이 아이의 초기 삶에 얼마나 중요한 기반이 되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담과 격정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내가 과연 남의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정서적·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이다. 그러나 가정위탁은 완벽한 양육 능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일상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돌보는 구조이며, 그 과정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함께한다.

현장에서 만난 위탁가정들을 떠올려 보면 특별한 조건이나 준비된 역량이 있어서 시작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집이 조금 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아이에게 하루라도 편안한 시간을 줄 수 있다면”이라는 마음이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음은 아이들의 변화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경계하던 아이가 점차 웃음을 보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순간들을 현장에서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위탁은 아이를 완전히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 안에 이미 존재하는 회복의 힘이 다시 자랄 수 있도록 한

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위탁부모의 역할은 분명 중요하지만 동시에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아이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따뜻한 관심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된다.

최근 가정위탁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 비해 위탁가정의 수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곧 회복의 시기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가정위탁은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가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 곁을 내어주는 자리이다. 그 짧은 동행은 아이에게 안정된 기억으로 남고 이후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한다.

혹시라도 “우리도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가정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열린 마음이다. 그 마음이 모일 때 아이들은 더 이상 혼자자가 아닌 환경 속에서 자라갈 수 있다.

가정위탁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많은 가정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이다. 그 한 걸음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소망한다.

복지칼럼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넘어 자립으로



이 상 기
충청북도남자청소년쉼터 소장

청소년쉼터는 오랫동안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해왔다. 위기 청소년에게 잠자리와 식사,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일은 여전히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시대 변화와 함께 가정 밖 청소년의 현실이 더욱 복잡적으로 드러나면서, 청소년쉼터의 역할도 단순 보호를 넘어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은 단순히 쉼터를 떠나 혼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안전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고 학업과 진로, 경제 생활, 주거, 건강관리, 대인관계 등 삶의 여러 영역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즉 자립은 보호의 종료가 아니라, 보호 이후의 삶까지 함께 고민하는 지속적인 동행의 과정이다.

가정 밖 청소년이 집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한 일탈이나 충동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많은 청소년이 가정폭력과 학대, 방임, 부모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이유로 집을 나온다. 이들에게 원가정 복귀가 항상 최선은 아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가족 갈등, 폭력 경험은 귀가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내가 근무하는 쉼터 퇴소 청소년의 80% 이상이 자립을 선택했다. 따라서 단순히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청소년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앞으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쉼터는 의식주 지원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지, 상담, 의료지원, 학업 유지, 진로 탐색, 직업훈련, 경제교육, 사회관계 회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중장기청소년쉼터는 안정적인 생활 속,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보호시설을 넘어 청소년의 삶을 다시 세우는 기반이 된다. 청소년에게 쉼터는 잠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건강한 자립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

자립을 위해서는 개인별 상황에 맞춘 지원이 중요하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각기 다른 배경과 욕구를 가지고 있어 학업 유지, 취업 준비,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 등 필요한 지원도 다르다. 따라서 획일적인 자립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입소 초기부터 자립 수준을 파악해 개별 자립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립지원은 실제 생활과 연결되어야 한다. 통장 만들기, 예산 관리, 공공금 납부, 병원 이용, 이력서 작성 같은 생활기술은 가정의 보호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낯선 과제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은 퇴소 직전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쉼터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자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시행착오와 경험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자립지원수당과 주거·취업·학업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됐으며,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사업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쉼터가 단순 보호를 넘어 사회로 나가기 전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키우는 공간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자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많은 청소년이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어려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쉼터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신청 과정과 지역사회 자원을 함께 연결해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자립은 청소년 개인만의 과제가 아니라 시설과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공동의 과제다.

가정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이들을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으로 보는 시선은 자립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많은 청소년은 살기 위해 집을 나왔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 쉼터를 찾았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낙인이나 동정이 아니라 기회와 관계, 지속적인 지지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나눌 때 청소년의 자립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자립은 혼자자 아닌 동행이어야 한다. 청소년쉼터의 목표는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밖에서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데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호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제 청소년쉼터는 단순 보호를 넘어 청소년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의 출발점으로 더욱 중요해져야 한다.

똑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법률
홈닥터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상담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등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
(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
홈닥터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매주 병원 진료 때마다 모시고 다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나머지 형제들은 장남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라며 동일한 상속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즉, 공

기여분

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 또는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 재산을 더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재산 분쟁에서 ‘효자 중의 효자만 기여분을 인정받는 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법원은 기여분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속재산 분할에서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는 물론 가까이 살며 자주 얼굴을 비친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화가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위 사례의 경우도 상속재산 분쟁에서 기여분을 당당하게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동정

인사동정 이용 안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사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대리

복지정보 제공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유관 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43w.or.kr) 팝업창 참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유니버설디자인센터 협선 교육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회차별 40명 이내
- 주요내용: 주택체험관, 유디체험관 및 휠체어 체험관 견학 *무상교육
-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거주공간 설계를 통해 모두가 불편함 없는 생활공간 체험
- －모두를 위해 디자인 된 UD 적용 일상 용품을 이해
- －이동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행 체험(불규칙 바닥로, 경사코스 등)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전화 접수(T. 043-234-0840~2)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참고: https://www.043w.or.kr/www/index.do

〔청주정신건강센터, 녹색자금 숲체험·교육 지원 사업 운영 안내〕

- 사업내용: 산림청, 복권위원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후원으로 정신장애인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속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금 숲체험·교육 지원 사업
- 운영기간: 2026년 2월 말 ~ 10월
- 운영형태: 당일형·숙박형 숲체험 프로그램
- 사업대상: 청주 지역 정신장애인 및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 서비스 내용
- －당일형 5회, 숙박형 4회 총 9회기 운영
- －숲길 걷기, 명상, 감정 나눔, 자연 기반 체험 활동 등
- 신청문의: 청주정신건강센터(T. 043-285-0102)
- 접수방법: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cjmental01@naver.com) 접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안내〕

- 사업내용: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힘든 발달장애인에게 욕구 및 자원 필요도에 따라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및 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주요서비스 및 제공시간
- －24시간 개별 1:1 지원(주중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 －주간 개별 1:1 지원(이용자 특성에 맞는 1:1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 －주간 그룹 1:1 지원(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사용하는 1:1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 서비스내용: 도전행동지원,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 취미활동 등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T. 043-716-2168~9)

〔하트하트 재단, 2026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공통) 의료·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저소득 아동·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내 아동·청소년 가정(의료비) 만 18세 이하 긴급수술 필요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등
- 지원내용: 의료비-연간 최대 200만원, 생계비-연간 최대 120만원
- 사업기간: 2026. 1. 1.~11. 30.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구비서류 작성 및 이메일 접수(사회복지기관 또는 병원 등 기관을 통해 신청)
- 참고: www.heart-heart.org

〔밀알복지재단, 2026년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위기극복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지원대상: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중위소득 100% 이내의 만 16~24세 청년(장애,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우대)
- 지원내용: 1인당 지원금액 500만원 한도 내 생계·주거·의료비 지원
- －생계비: 식품품비, 생필품비, 의복구입비 등
- －의료비: 수술, 재활 등 치료·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반비용
- －주거비: 월 임대료(월세), 관리비, 각종 공과금(전기, 가스 등)
- 신청기간: ~2026. 12. 31.(목)
- *상시접수/예산소진 시 사업 조기종결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참고: www.miral.org

〔함께하는사랑발, 화상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새싹’〕

- 신청대상: 치료비 부담으로 수술(치료)을 중단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화상환자(가족)
- 지원내용
- －지원 항목: 피부이식, 흉터, 성형/재건, 피부 재활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수술비
- －지원 금액: 최소 500만원 이상(사례별 차등)

- 지급)
- 신청기간: 연중수시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참고: www.withgo.or.kr

〔한국전력 충북본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고효율 기기로의 교체비용 지원(시설당 1600만원)
-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에너지효율 1등급 고효율 냉방기, 냉난방기, 멀티히트 펌프시스템 실외기 3개 품목
- 신청기간: ~2026. 12. 18.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제출서류 다룬 및 작성 후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
- 참고: online.kepco.co.kr

〔KBS강태원복지재단, 2026 위기가정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관: 전국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 기관/단체(마을단위 NGO 협약 체결 기관에 한함)
-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지원내용: 위기가정 지원금 지원(1가정당 최대 500만원, 최대 2회 지원 가능), 수행기관 대상 사례관리 지원금 지원(위기가정 지원금의 10%)
- 지원항목: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교육·양육비
- 신청기간: 월 1회(1일~15일)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방법: 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기간: 2026년 2월~12월
- 참고: www.kbsktw.com

〔우양재단, 2026년 새출발 소원상자 사업 신청 및 결과보고 안내〕

- 신청기관: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전국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 폭력 피해이주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이주여성쉼터)
- 사업대상: 신청기관의 퇴소자로 신청일 기준 해당월에 입주하였거나 입주가 예정된 가정, 퇴소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 입주초기 생활·정서·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
- 지원내용: 1가정당 먹거리, 생필품, 자기계발 물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 사업기간: 2026년 2월~12월
- 지원물품: 먹거리(최소 20만원~30만원), 생활용품(최대 20만원 이하), 자기계발(최대 10만원 이하)
- 신청방법: 구급품을 통한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간: 매월 1일~10일 신청

자원 봉사자 모집

-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6.1~6.30.
전화번호: 043-234-0840

- ▶ **시설 내 외부 환경정리**
관리센터: 상록원
활동기간: 6.1~6.30.
전화번호: 043-253-4760

- ▶ **학대피해아동 멘토링**
관리센터: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활동기간: 6.1~6.30.
전화번호: 043-731-3685

- ▶ **한국어교육 봉사**
관리센터: 진천군가족센터
활동기간: 6.1~6.30.
전화번호: 043-537-5435

- ▶ **장애인디지털리터 환경정리**
관리센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6.1~6.30.
전화번호: 043-275-7411

- ▶ **무료 경로식당 운영**
관리센터: 제천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6.1~6.30.
전화번호: 043-644-2980

- ▶ **시니어 노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관리센터: 오송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6.1~6.30.
전화번호: 043-234-5479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실신폭개봉사단, 4년간 이어온 손뜨개 나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협의회) 소속 ‘실신폭개봉사단(이하 봉사단)’은 실과 바늘로 정성을 엮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봉사단은 청주내덕노인복지관에서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며, 한 코 한 코 정성을 담아 연간 약 200개의 목도리를 직접 제작하고 있다. 완성된 목도리는 청주시 청원구 내 저소득층 아동 관련 사회복지기관 6곳에 전달하여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아동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봉사활동은 최근 4년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아이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함께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되어 있는 2인 이상 자원봉사자로 기술 및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활동 혜택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맞춤형 봉사활동 연계, 봉사활동 활동재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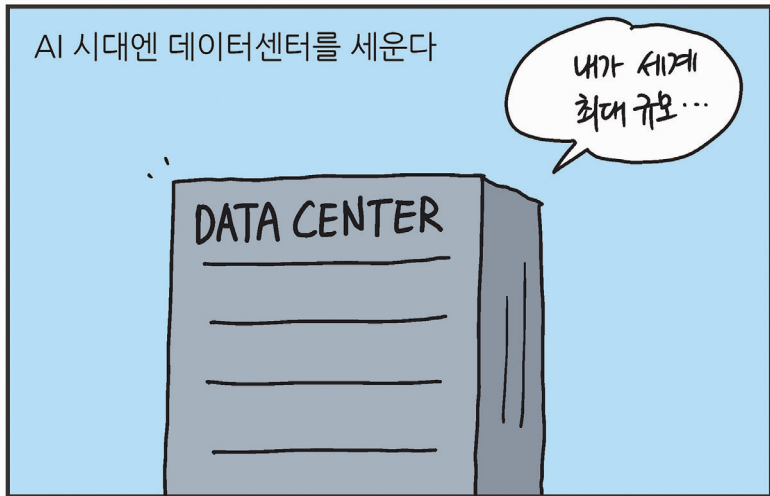


VMS 봉사실적 관리, 우수봉사단 표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누리집(www.043w.or.kr) 또는 협의회 복지정보과 ☎043-234-0840)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만/평

고인돌

이창신 www.bokmani.com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누가 더 큰지 경쟁하곤 한다.

